

“정확한 조사가 좋은 사회를 만듭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고령자기업 탐리서치, 노인 일자리 창출 나서

노인인구 100만 시대, 노인 인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복지의 키워드가 됐다. 하지만 대다수 노인 일자리는 보수가 낮고 임시직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어르신들이 설문조사원으로 활약하며, 안정적인 고수익을 창출해 내는 일자리가 있어 노인 일자리 문화의 귀감이 되고 있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가섭)는 10월 20일 설문조사 위탁기관 탐리서치를 개설했다. 6월 서울시로부터 고령자기업으로 선정된 탐리서치는 이날 개소식으로 설문조사를 위한 근무 환경 조성을 마쳤다.

탐리서치는 2005년 중앙 고령자취업 알선센터에서 고령자 유망직종으로 개발된 일자리이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2007년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설문조사원 ‘탐리서치 사업단’을 발족하고, 2008년에는 조사원 20여 명이 매출 1억원을 달성해 2009년 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 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탐리서치는 전문 마케팅, 설문조사 기관으로부터 조사 의뢰를 받아

현장에서 다양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어르신들은 노동부·산업자원부·산림청 등의 국가정책 설문조사, 학위논문·기업의뢰 설문조사, 기업마케팅 관련 설문조사를 해왔다.

물량공세를 하거나, 비키니 복장 정도의 설문조사원들도 받아 내기 힘든 설문조사를 어르신들은 어떻게 할까?

설문조사를 담당하는 어르신들은 사회에서 다양한 활동 경력을 가진 고학력 조사원이다. 전 언론인, 건설회사 CEO, 국가연구소연구원, 시장조사사업자, 국가고위공무원, 대기업 이사 등 경력을 가진 어르신들은 정기적으로 서울시 종로 고령자취업 알선센터, 활기찬미래연구소, 서울시 노인취업 훈련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 조사원 교육도 철저히 받고 있다.

사회경험이 풍부한 어르신들이다 보니 조사 과정에서 풍부한 삶의 경험 바탕으로 정확한 설문조사는 타설문기관과 다른 장점이었다. 이런 장점으로 신뢰를 쌓으며 유명 조

사기관들과 연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어르신들은 설문조사원직을 수행함으로써 개인당 서울시 지원금 10만원 외에 조사 건당 리서치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수를 받아 훌륭한 수입을 얻고 있다.

탐리서치 어르신들은 자신이 사회변화와 사회구성원의 생각을 담아내는 사회조사사업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높았다.

올해 3년째 활동하고 있는 김종우 조사원(69)은 “활동량이 많아 건강에 좋고, 젊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일은 즐겁지만 조사하는 과정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어르신은 “조사를 할 때 질문에 흔쾌히 호응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이들을 만나거나, 조사원을 무시할 때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종우 어르신은 “예전부터 쌓아온 내용을 발휘하면 마치 묘수를 부리는 것처럼 성실하게 응답해 준다”고 말했다.

탐리서치 운영기관인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가섭 스펀은 “탐리서치



서울시 고령자기업 ‘탐리서치’에는 60세 이상의 30여 어르신들이 조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탐리서치 사무실에서 전화조사업무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꼼꼼하고 정확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는 사회변화와 사회구성원의 생각을 담아내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설문조사 사업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향후 모범적인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령자기업은?

고령자기업은 노인을 채용해 지속적인 수익을 내면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다. 60세 이상의 고령자 채용비율이 전체 채용인원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서울

시는 기존 노인일자리가 대개 보수가 낮고 단기라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8년부터 고령자기업 지원 사업을 벌여왔다. 고령자기업으로 선정된 곳은 시설비와 인차료 등 창업비용으로 기업당 최대 1억 원을 지원받게 되며,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받게 된다. 현재 관악구 행운동 죽석두부전점점 공각지를 비롯한 9개 기업이 고령자기업으로 선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기업에서 약 110명의 노인이 일하고 있다.

이상연 기자

“오해다” VS “떠나라”

BBS, 사장-노조 성명서 통해 공방

BBS(이사장 영담) 김영일 사장 직무대행의 임금 수령 문제로 불거진 갈등이 성명과 해명이 이어지면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김영일 사장직무대행은 10월 18일 입장서를 통해 “자신에 대한 오해는 소통부재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김 사장직무대행은 “문제가 되는 임금 수령 논란은 ‘전일자보다 수익이 못 낼 때는 연봉 1월의 정식으로 봉사하고 수익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수익이 나면 그때 보상을 받겠다’는 인터뷰 내용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김 사장직무대행은 “BBS 입사 8개월 동안 별다른 소득이 없다가 과거 전일자 예우에 준해 정상적

인 ‘전무’ 급여를 지급받았던 것 뿐이다”라며 “BBS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면 떠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BS노조(위원장 손근신)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김영일 사장 직무대행은 공사사에서 ‘연봉 1월’을 강조하며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왔다”며 “전 직원이 체력 단련비와 제수당의 일부를 반납하는 과정에서 자기 손으로 자신의 임금을 올려 받는 김 사장직무대행의 행위는 비윤리적이다”라고 질타했다.

노조는 “BBS 발전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된지 오래이다. 92.9%의 노조원이 퇴진을 찬성한 김 사장직무대행은 당장 불교방송을 떠나라”고 촉구했다.

조동섭 기자

법상종 국보 제7호 봉선홍경사 도량제 봉행

대한불교법상종(총무원장 해월)은 10월 20일 전 안 성황을 대흥사에서 ‘제2회 국보 제7호 봉선홍경사 아타파구신 도량제’를 봉행했다.

지난해 성환문화원(원장 송용삼)이 주관해 시작된 도량제는 올해부터 법상종이 종단행사로 확대 개최했다.

봉선홍경사는 고려 현종이 아버지 인종의 뜻을 받들어 사찰 200여 칸, 객관 80여 칸으로 국태민안 도량제를 7일 동안 봉행한 법상종 국찰이었다. 도량제는 국태민안을 발원하기 위한 지금의 법하다.

천안시립 풍물단의 사물놀이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 송용삼 성환문화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적지 정비, 복원을 통해 국보 제7호를 알리는 지역문화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총무원장 해월 스님은 법문을 통해 “국보 7호인 법상종 홍경사를 정비하고 복원하는데 법상종은 전

안시와 문화원과 적극 협조해 국가 문화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서는 교육부장관 일공 스님 외 참의대중들의 아타파구신 도량제 의식 시연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10월 18일부터 안성 쌍미루사에서 2박 3일간의 정기종도교육을 마친 법상종 100여 종도들을 비롯해 성환읍민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가했다. (031)677-9950 노덕현 기자



100자 뉴스

진각종, 회당종조 열반47주기 추념불사

진각종(총리원장 혜정)은 10월 16일 서울 하월곡동 총인원에서 진각종 회당종조 제47주기 열반절 추념불사를 봉행했다.

총리원장 혜정 정사는 추념사를 통해 “진각 성존의 깊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진정으로 수행하고, 진정으로 보은하고, 진정으로 화합하는 길로 가기 위해 자성을 찾는 참회로 대 정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추념불사는 회당 종조 열반지인 불승심인당(대구 침산2동), 탄생지인 금강원(울릉군 사동리) 종조전, 불광심인당(미국 LA) 등 국내외 주요 진각종 성지와 심인당에서 동시 봉행했다. 조동섭 기자

팔공산 묘적암 산신각 중수 불사 봉행

산신영험도량 팔공산 묘적암 (주지 성인)은 10월 17일 산신각 중수 불사 기공식을 봉행했다.

묘적암은 11월 15일 산신각 중수 불사 원만 성취 칠일기도를 입재해 회향일인 21일 오전 11시에는 산신대제 및 회향 법회와 산사음악 공연을 봉행할 예정이다. (011-9371-8080) 손문철 대구지사장

BTN 스마트폰으로도 본다

BTN(회장 성우)이 스마트폰을 통해 BTN뉴스, BTN소식, 예불, 법문, 강좌 등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모바일 웹페이지(m.btn.co.kr)를 10월 25일 정식 오픈했다.

BTN의 모바일 웹페이지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등 모든 스마트폰에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조동섭 기자

영천 은해사 개산 1201년 기념 개산대제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은 10월 16일 개산 1201년을 기념하는 개산대제를 봉행했다.

행사는 은해사 부도전에서 개산조인 혜철 국사와 역대조사들에게 차를 공양하는 차 공양을 올리는 다례제 시작으로 현공의식, 법요식 순으로 봉행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양주 보리사 낙성식 및 점안봉안식

송추 보리사(주지 덕찬, 조동종 종정)는 10월 16일 낙성식 및 점안봉안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부종정 덕룡 스님, 총무원장 덕우 스님, 종회의장 혜륜 스님, 문화원장 행찬 스님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조동종 종정 덕찬 스님은 인사말에서 “송추 보리사 장건불사 회향을 간화선 일색인 한국불교에 여래의 지견이 담긴 목조수 수행법을 더욱 널리 퍼는 정진의 기회로 삼자”고 말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스님이 만든 생식 공유 50%를 받아서긴 호소 말아생식

- 1 타 생식에 비해 채소류, 해조류가 2배 이상 첨가되었습니다.
- 2 유기농으로 재료를 만들었습니다.
- 3 99% 국내산 제품입니다.
- 4 돈을 벌기 위한 제품이 아닌 중생들의 건강을 위한 제품입니다.

판매소를 모집합니다 문의전화 070-7629-5920

▶ 1명 1회 (40여) × 100,000원 (양도 12개월)

불교용품 / 불교서적 / 불교달력 검색창에 **붓다쇼핑** 을 치세요. www.buddhashopping.com **동진기획** 상호는 출판사등록 제11-67호입니다. 붓다쇼핑 사이트에서 회사소개를 클릭하시면 출판사 등록증, 인쇄사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동진기획 · 붓다쇼핑

타 사이트와 품질 · 가격을 비교해 보세요!

불교용품	불교서적	불교달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침향, 주옥, 염주, 염주주머니 양초, 향, 다포, 악세사리 4·8용품, 등표, 전선·전구 공단통, 바림통, 만월통, 청사초롱 봉축카드, 생일카드, 프린트지 예수제품용, 영가웃, 탐다라니 축원카드, 용선, 위패, 부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경책, 사경지, 한지백팔사경 우리말사경책, 제비라뱃뎌 금강경전세토, 불자수첩, 병풍 공강경, 법화경, 지장보살본원경 예불전수경, 천지팔양경, 보문품 백팔대왕회문, 불설아미타경 한지공책, 사경공책, 권선문 자비도량참법, 성불합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6 절(大) (30.5×31.0cm) 12절 (25.8×26.5cm) 차갈이 (9.0×15.5cm) 미니 (8.9×9.5cm) 다이어리 (9.5×13.4cm) 탁상 (26.2×19.0cm) 한지 (30.0×45.5cm) 행택으로 가는 길(18.1×20.0cm)

12월 1,000원 (1,000부 이상)

공장 → 사찰 직거래 판매

생산자 → **도매상** → **불교상회** → **사찰**

동진기획 · 붓다쇼핑 대량구입시 전화주시요

☎ (051) 515-8888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번지
 TEL (051) 515-2988, 555-1087, 508-9377~8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FAX (051) 508-0101
 H.P 011-554-2988, 011-879-0889 이메일: dongjin8888@naver.com

※ 불교서적 범보시 기본 100권 인쇄시 20,000원이며 추가인쇄시 100권당 +10,000원 추가됩니다.

※ 총 40종의 달력,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달력카다록 · 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시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